

# 뒤늦게 알려진 北조성길 한국행...남북관계 '살얼음'

머니투데이 | 이동우 기자

2020.10.07 06:5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706554926337&type=1>

기사주소 복사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 /사진=줄리아 폼필리 트위터(뉴스1)

'제3국 망명설'이 돌았던 조성길 북한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사급 북한 고위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망명한 사례는 처음이라 남북관계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해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이날 JTBC 방송을 통해 처음 보도됐다.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정황이 하나씩 나오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보고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소재를 함구했다. 하 의원의 주장대로 지난해 7월 조 전 대사대리가 입국했다면 의도적으로 신변과 소재를 감춘 것이다.

정보당국은 그의 신변 문제와 북한과의 대화 기조 등 남북관계를 고려해 그의 입국 사실을 함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사대리는 북한 재외공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바치는 상납금에 문제가 생겨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전 대사대리의 국내 거주로 인해 남북 간 다시 한번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말 서해에서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당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귀순 사실 공개는 관계 악화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외교부가 조 전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을 공식 확인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미 한국에 들어온 시일이 꽤 지났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대사대리의 스스로 선택한 망명이라면 대남 비난이 별다른 효과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 전 대사대리는 앞서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보다 고위급 인사다. 태 의원은 망명 당시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직이었다. 대사급 인사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으로 망명, 입국한 북한 외교관 출신은 태 의원 외에도 1991년 고영환 전 주콩고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현성일 전 주잠비아 북한 대사관 3등서기관 등이 있다.

한편 조 전 대사대리는 태 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지난해 1월 '조성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조 전 대사대리를 '친구'로 부르며 그에게 한국행을 권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